

國際原子力機構 議長에 鄭根謨博士선출

韓國의 科學技術, 國際社會에서 인정

韓國科學財團理事長 鄭根謨博士(韓國에너지協議會 理事)가 지난 9월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제33차 國際原子力機構(IAEA) 총회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議長에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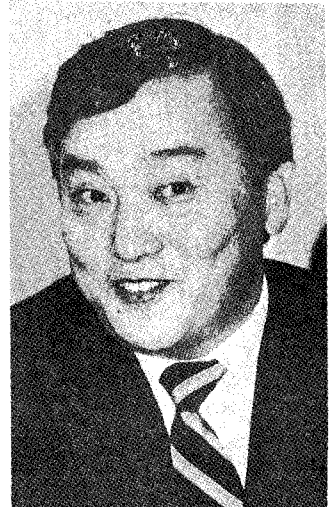
IAEA는 113개 會員國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차원의 유엔기구로서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 核武器擴散防止, 核에너지研究 및 相互技術協力 등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다.

한국인이 IAEA와 같은 중요한 유엔 산하 國際機構 총회 의장에 당선된 것은 大韓民國 건국 이후 처음있는 일로서 우리나라 科學技術이 國際社會에서 인정 받은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총회의 의장선출과 관련하여 북한의 崔基哲이 임후보 하였으나 선거직전 임후보를 자진 철회, 鄭博士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核物理學者인 鄭博士는 이날 북한의 집요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美國, 英國, 西獨 등 서방국가는 물론 소련, 東獨, 헝가리, 中國 등 공산국가들의 지원까지 얻어 당선되었다.

이에 본誌는 設問을 통해 鄭博士의 당선소감을 들어보았다.



(問) 국제원자력기구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議長에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우선 당선소감은?

(答) 물론 나 개인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그 보다는 우리나라가 국제 과학기술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1957년에 IAEA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결국 32년만에 처음으로 議長을 맡게된 것인데 이것은 한국 과학기술에 대한 인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國際外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經濟發展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뒤만 쫓아 다니던 처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주요일원으로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問)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 받고 있습니까?

(答) 한국은 이제 과학기술면에서 절대로 開途國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原子力技術하면 美國 技術만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빈에 위치하고 있는 IAEA본부에 비치되어 있는 주요 연구논문 中에는 한국 학자들이 참여 발표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本人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체르노빌 原電事故이후 새로 構成(IAEA산하)된 原電 설계 건설 및 운전에 관한 基本지침서 작성委員會에 내가 한 멤버로 되어 있으며 노벨상 수상자를 여러명 배출한 전통적인 과학국가인 헝가리에서 저를 초청해 한국과의 기술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기술에 대해 배울점이 많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IAEA本部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韓國에너지研究所 派遣技術者등 한국 과학자에 대한 평가가 대단하며 美國, 西獨, 東獨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술이 인정받고 있는 現實입니다.

1957년 당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거의 제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48%를 원자력발전에 의해 충당하고 있고 또한 技術自立을 위해 주력한 결과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다른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어떻게 짧은기간에 선진국과 어깨를 겨눌수 있는 실력을 培養 하였느냐고 부러워하며, 開途國에서는 선진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원전기술전수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問) 國際原子力機構(IAEA)는 어떤 일을 하는 기구입니까?

(答) 原子力은 제2차 世界大戰중에 주로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1953年 12月 UN총회에서 아이젠하워大統領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창한 이래 1954年 UN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설치와 이에따른 국제회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57年 IAEA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는데, 이 기구가 수행하는 일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中 특히 중요한것은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問題와 核武器擴散防止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原子力發電과 同位元素의 실용화 등을 들 수 있으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핵확산방지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만들어 많은 국가들이 이에 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75년에, 북한은 1985년에 이르러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 서명만으로는 실효가 없고 실제로 핵무기를 만드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보조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IAEA와 다시 안전조치협정(SAFE GUARD)을 맺어 IAEA요원으로 하여금 各國 현장에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조치협정은 NPT가입 후 18개월이내에 체결하도록 되어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美國, 濠洲, 네덜란드 등이 북한을 지칭해서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촉구했고, 그밖에 日本, 소련과 東獨등 동구권에서 모두 우리 입장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외교의 획기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며 동구권 국가들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북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問) 우리나라에서 原電의 安全性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신뢰도는 어떠한지요?

(答) 나는 原電이 100% 安全하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전과 관련 중요 결정을 내릴 때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잘못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원전건설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問) 체르노빌原子力發電所 사고이후 西歐에서는 原電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民主化 추세와 함께 原子力發電에 대한 비판이 서서히 일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答) 우리들은 현재 기술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文明은 한마디로 科學文明입니다. 우리가 科學文明 時代에 살고있는 이상 어떤문제가 생기면 이를 적극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냥 회피한다든지 좌절하면 발전과 전진은 없습니다.

現代社會의 原動力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 발전시키느냐 하는것이 과학문명의 발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源을 찾고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데는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科學技術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처지에서 電力需要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電力生産을 化石燃料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水力은 한계가 있고 無公害, 低廉한 原子力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좁은 國土에서 石炭으로 發電을 하면 公害 때문에 당장 난리가 날것입니다. 原電反對論者들도 석탄발전소에 가보면 이해가 갈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너지源으로의 선택은 原子力밖에 없습니다. 安全技術만 확보하면 原子力같이 깨끗한 에너지도 없다는 것을 우리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